

# 연이은 태풍에 농민들 속탄다

### 태풍 '바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 300ha 달해 '마이삭' 강풍·폭우 동반돼 생육기 작물 피해 예상 일부 농가 강풍 피해 최소화 위해 망으로 작물 덮어

제주에 제8호 태풍 '바비'가 영향을 끼친지 일주일만인 2일 9호 태풍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월동 채소 재배 농업인들이 또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양배추, 월동무, 비트는 8월 하순부터 파종과 정식에 이뤄져 어린 싹과 모종이 강풍이나 폭우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한 태풍 바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접수는 현재 239ha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50여ha가 접수된 상태다. 피해 작물은 당근, 월동무, 양배추, 비트 등이다.

제주시 지역에서 당근과 더덕은 파종이 모두 이뤄져 한창 생육기를 맞고 있다. 월동무는 재배예정면적 1730ha 중 30%에서 파종을 마쳤고, 양배추는 예상면적 1287ha 중 40% 정도 정식을 끝낸 상태다. 브로콜리는 예상면적 980ha 가운데 정식을 10% 상태다.

특히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는 8월 중·하순부터 파종과 정식에 이뤄

져 싹과 모종이 어린 상태라 농가들은 태풍 '마이삭' 내습에 따른 강풍 피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농가들은 어린 월동무 싹 위에 망을 덮어놓는 등 강풍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망 설치에는 국산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3.3㎡당 1500원,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 1000~1100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 몇몇 농가에서



동부지역 월동채소 재배농가에서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망을 씌워놓았다. 사진·독자 제공

설치한 결과 강풍 피해를 상당히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올해는 제주도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여러 농가에서 설치한 상태다. 어린싹이 강풍을 맞으면 활착하지 못한 뿌리가 흔들리며 넘어짐(노복)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강석보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은 "지난해 일부 농가에서 채소밭에 망을 씌웠는데 강풍 피해를 80~90% 정도 예방해주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월 월동무 출하시기 가격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고 있고, 강풍으로 인한 쓰러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망을 설치한 농가가 적잖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해 이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이 2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제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확대 탐동광장·시장 등 다중밀집 23곳

### 오늘 시행... 자치경찰 순찰 공공시설 운영도 일시 중단

제주지역 인구밀집지역인 다중이용시설 등지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생활방역위원회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 특성과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시설 12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플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전통시장, 공공청사,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등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탐동광장과 한라수목원, 서귀포시 자구리해

안, 각 지역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 순찰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오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 생활방역위원회는 지난 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 장소는 탐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모투거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등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태풍 '바비' 영향 제주해역 저염분수 소멸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제주주변 해역 내 저염분수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2일 밝혔다. 저염분수는 염분의 농도가 26psu

(실용 염분 단위) 이하인 바닷물이다. 저염분수가 해역에 퍼지면 수산생물의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주고, 수산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폐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기 전 기상관측선 기상 1호의 특별 관측 결과 제주 주변 해역에서는 약 26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수심 10m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태풍 바비로 인해 바닷물 상하층의 혼합이 활발히 이뤄진 영향으로 바닷물 표층의 수온이 낮아진데 반해 염분은 상승하면서 제주 주변 해역의 저염분수가 소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풍 바비가 이어도 종합해안과학기지에 근접했을 때 인근 바닷물의 염분은 8psu 증가한 32psu, 수온은 9℃ 낮은 21℃였다. 이상민기자

## "전교조 범의노조 취소 판결을" 민주노총제주 대법원에 촉구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범의노조 취소를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은 뒤 7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전교조 범의노조 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올해 5월 20일 공개 변론을 연 지 석 달 만인 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범의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라며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을 통해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중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제주국제학교 충원율 78.4%... 역대 최고

### 입학 경쟁률 2:1 수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 중인 제주국제학교 충원율이 개원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JDC는 지난 1일 자회사인 (주)제인스(대표이사 김용익)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2020~21학년도 전체 충원율이 전년 대비 4.7%p(185명) 증가한 78.4%(3116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타 시·도 국제학교의 충원율이 43~6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또 글로벌 국제학교

법인인 GEMS Education(51개교 운영)과 Nord Anglia(66개교 운영)의 68~82%에도 견줄 만하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교한 SJA Jeju(2017년 10월 개교)는 개교 4년 만에 충원율 70%를 보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타 국제학교가 평균 6년이 소요된 것과 대비해 최단기간 내에 괄목성장을 보였다. 신학기 개학 이후에도 지원 학생이 다수 있어 대기자 선발 및 수시모집을 통해 2020~21학년도 내 충원율은 80%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제학교들이 안정 궤도에 오른 것과 더불어 입학 경쟁률은 약 2:1 수준이다. 이는 향후 국제학교 입학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JDC는 강조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과를 거뒀다. 2019~20학년도 졸업생 223명이 스탠포드대와 옥스퍼드대를 포함한 해외대학에서 입학허가 1104건을 받았다. 특히 세계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1년 세계대학순위 50위권 학교에서 200건 이상의 진학 성과를 기록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현장중심 ... 적극행정 ... 공감소통

제주의 밝은 미래,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